

■ 여권 지도부 연초부터 '개헌론 재점화' 왜?

MB 레임덕 늦추고 야권 흔들기

'친이계 결속 친박 견제' 다목적 포석도

박지원 "개헌 하려면 與 통일안 내놔야"

여권 지도부가 새해 벽두부터 개헌을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가 연초부터 입을 맞춘 듯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개헌을 고리로 여권뿐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일 "미국은 지난 200여년간 개헌을 26번 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18년간 개헌을 3번 했다"며 "그동안 정치 환경과 국제 정세가 변함만큼 23년 전의 체제로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 부패 구

조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도 전날인 3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새해에 개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 원내대표도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미국식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올해 초부터 시작해 6월 전까지 끝내야 한다. 논의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하고 싶다면 똑똑한 안, 통일 안도 한 듯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특히, 개헌은 국회 의원 3분의 2의 찬성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정치권의 분위기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 친박(친박근혜)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 대다수도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박계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개헌은 국민이 원할 때 논의돼야 정치인들이 개인 목적으로 논한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이슈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도 개인적으로 개헌찬성론자이지만 실기했다"며 "개헌을 하고 싶다면 똑똑한 안, 통일 안을 먼저 내놓고 얘기하자고 역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권이) 통일된 안도 만들지 못하면서 모든 실정의 이슈를 개헌으로 뺏아버리

려는 정략적 태도를 갖는 것은 또 한번 야당을 흔들어 보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여권 지도부가 개헌을 꺼내든 것은 실제로 개헌을 관철하겠다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국민 관심을 개헌으로 몰아넣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계산에 따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나아가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반발하고 있는 야당의 투쟁 열기를 무력화하는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권을 향한 광복 행보를 시작한 데 대해 친이계 내부를 결속시켜 '비박(비박근혜) 대오'를 구축하려는 국면전환용 '포석'도 깔려있는 등 다목적 카드로 개헌론이 등장했다는 분석이 정치권에 돌고 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이들째 고향 다지는 박근혜 4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 여성정치아카데미 신년교례회에서 청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론회 인사말하는 손학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성북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청년·여성위원장 선거 '계파 대리전'

청년위원장 손학규계 서양호·정동영계 이상호 경쟁

여성위원장 김근태계 유승희·비주류측 장복식 거론

민주당의 전국 청년, 여성위원장 선거(1월 19~20일)를 놓고 당내 계파 간의 치열한 경쟁전이 펼쳐지고 있다.

우선, 청년위원장의 경우 손학규 대표 측에서는 친노(친 노무현)계 인사인 서양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의사를 굳히고 뛰고 있다.

그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조직 실무를 맡아 손 대표의 당선에 적지 않은 공을 세웠다는 평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측에서는 이상호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이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돌며 표

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은 2007년 대선후 보 경선 당시 정 최고위원의 승리를 일등 공신으로 분류된다.

정세균 최고위원 측에서는 정 최고위원과 가까운 지용호 현 청년위원장이 재도전 여부를 고심 중이다.

또 구 민주계 출신의 김영호 서대문을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위해 박우선 최고위원에게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위원장에는 유승희 장복식 전 의원이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

고 있다. 김근태계인 유 전 의원은 당내에서 손 대표나 정세균 최고위원측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장 전 의원은 정동영 박우선 전청배 최고위원 등이 속한 비주류 '쇄신연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

여성 및 청년 위원장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2012년 총선 공천 및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성 및 청년 조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편, 여성 및 청년위원장 공모는 7~8일이며 연설과 토론회 등 선거준비(9~18일)를 거친 뒤 해당 대표의 원 당선을 상대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김정일 만나러 평양 가겠다"

공개 방북 요청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방북을 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당 남북평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북측에서 긍정적 의사를 밝혀준다면 정부 당국과 협의해 지체 없이 방북 일정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위원장과 만나 전장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한국 국민의 뜻을 전하고 남북 간에 끊어진 대화의 다리를 놓는데 일익을 하고자 한다"며 "서해 바다를 육지의 개성공단처럼 만들자"고 한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위원장의 복원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2005년 6월 17일 김 위원장이 '조미간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이 이뤄진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한 말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북측이 원하는 북미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며 "(이를 위해선) 우선 남과 북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고, 김 위원장이 나의 방북을 통 크게 결단한다면 남북간 무던한 신뢰를 복원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대선후보 거론에 '유감' 표명

"한국·유엔 모두 안 좋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차기 대선후보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유감'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고위관계자는 2일(현지시간) "최근 일각에서 반 총장을 대선후보로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 총장께서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여러차례 대선에 나갈 뜻이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도 계속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반 총장은 올해가 첫 임기의 마지막 해로 재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총장 업무에 전념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사무총장 연임에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연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엔 관계자는 "유엔 사무총장을 한국의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것은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제사회나 사무총장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이 반 총장의 생각"이라면서 "반 총장이 국제사회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선후보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한다면 반 총장은 후보명단에서 빠질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무소속 예비후보

기탁금 몰수 합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나왔다가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면 납부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입도시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4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예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서울 관악구정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출마를 준비하다가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여야, 가축법 처리 상임위 개최 합의

국회 정상화 될지 관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구제역 확산 사태와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한나라당에 대해 자체 수정안 논의를 요구해온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날 예산안 강행처리 사태 이후 여야 간의 접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상임위에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이뤄질 경우, 인사청문회 이전에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법

생계안정 지원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원안을 제공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구제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안을 제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중·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남성 휴대용 **실물과 똑같은 내여자**

[꿈꾸는 공주]

내 여자가 장만에 화제다 얼굴이며 몸매가 모델을 뺀다는 거기에다 흔들며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머릿결 보드랍고 말랑거리는 피부 촉촉이든 눈동자 가슴과 신체 부위가 실체한 키는 1m50이 되며 색채나 피부가 생생한지 몇 걸만. 분농적인 성숙을 해소하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성'병 예방도 되니 내여자가 인기몰이로 불타고 난다.

주문량 폭주

※ 8만원 상당의 선물과 휴대용 기방도 드립니다.

(식약청 USA 통관제품) 인기폭발 **"양코"**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자수입품입니다. 30대부터 80대까지 지구력이 당당해 지므로 섭취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농협 02302-469931(정의철) 생노병사 불노정생 책을 드립니다

사이텍 070-7786-6631 010-6306-7070 (미쓰고) 070-7786-9710 010-7102-7070

손영호 박사의 로벤테라피 제품으로 관리하는 전문 관리실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손영호 의학박사가 개발한 로벤테라피란? 여러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천연성분을 가지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탄생한 제3세대 아로마테라피입니다. 기존의 아로마테라피와는 효과와 용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로벤테라피는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여러증상에 오일을 피부에 발라 10여분동안 마사지 하여 통증이나 각종 증상을 없애는 기적의 자연제품으로 현재 전국 많은 병원에서 사용중이고 전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속는셈치고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방문 환경 전화예약하시면 기대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오일을 피부에 발라 20분 맞사지/놀랍고 기적적인 효과/확신이 안가신분/무료상담, 방문현영/처음엔 의심하던 고객님이 1회관리후 통증이 없어지는 탁월한 변화를 체험하신후 많은 지인들을 모시고 오십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관절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허리통증 등으로 불편하신 분!
- 운동후 통증이 있으신 분!
- 어깨, 목, 복부, 허리, 팔, 다리
- 무릎, 발목 등 통증
- 근육통이 있으신분!
- CT, MRI 이상없는데 고통을 느끼시는 분
- 치질, 감기, 생리통, 요실금, 여드름

※ 위의 질병들을 가장 빨리 관리해 주셔서 로벤은 이미 세계최고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8. 신동아 9월호)

닥터손 로벤케어 광주 상무점

- 손영호 박사의 철저한 교육, 관리시스템으로 로벤테라피 전문관리 체인업
- 전문관리사(자격증소지)가 고객님을 직접관리
- 전문관리사: 소정의 교육이수 시험합격자에 한해 로벤케어자격증 발급

"로벤케어의 모든 관리는 책임제입니다"

책임제란? 효과없을시 돈을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닥터손 로벤케어 개설문의 환영
모집지역 : 광주,전남북지역
소자본투자/안정원수익

062)376-5557
광주시 서구 지평동 라인대우 APT 정문앞 2층 201호